



at 흥문표 사장 주재 '무궁화나무 식수 행사'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흥문표)는 나라꽃 무궁화의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30일 수원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흥문표 사장 주재로 무궁화나무 식수 행사를 개최하며, '무궁화동산' 조성의 첫발을 뗐다.

이 무궁화나무들은 해마다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을 방문하는 수많은 교육생과 관계자들에게 무궁화를 더욱 친숙하게 알릴수 있도록 나라꽃 사랑과 관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원은 이번 식수 행사를 시작으로 내년 식목일까지 교육원 내 체육시설 주변과 외부 휴게공간에도 무궁화 식수를 지속 확대해 나라꽃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무궁화동산'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at는 서울 양재꽃시장에서도 고객 출입 구역 유휴 공간에 무궁화를 심으며,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나주 분사 등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나라꽃 사랑을 시작으로 우리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김제 진봉면 자사협, '사랑의식료품 나눔' 사업 추진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준영)가 지난 29일 관내 저소득층 90세대를 위한 '사랑의 식료품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식료품 나눔' 사업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찾아오지 않아 쓸쓸하게 지내는 독거노인 및 식사 준비를 어려워하는 장애인 가정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 특화사업이다.

이번 봉사에는 진봉면 자사협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정성스레 준비한 김세트 90개를 결식우려 세대에 직접 방문, 전달하고 안부와 건강 상태를 살폈다.

최준영 민간위원장은 "절점 추위에는 날씨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잘 챙겨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지도록 지속적인 봉사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남원 이백면, 겨울철 화재 예방 안전점검 실시



남원시 이백면(면장 안동준)에서는 1일 1가구 소동행정을 통해 발굴한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겨울철 화재 예방 안전점검(가스, 기름·화목보일러, 전기장판, 콘센트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일 1가구 방문 시 상담을 통한 안부 및 사회안전망 확인 등 실시하고 그와 함께 노후된 고부관을 철제관으로 교체 하도록 안내, 기름통 기름유출 여부, 뚜껑 훼손 여부, 화목보일러 빨간 2m이상 이격 안내 등 기름·화목보일러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오래되거나 고장난 전기장판 점검과 보관 및 사용방법 안내하고 콘센트에 문어발식 사용을 금지하는 등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소화약제 등 유의사항 안내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잇따른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와 검증되지 않은 소화약제의 홍보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주요 유의사항은 △국내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마그네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리튬전지, 리튬이온 전지(리튬배터리)와는 무관 △리튬배터리 화재를 분류하는 유형은 구제적으로 없었 △전기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 현상과 패킹된 배터리 내부로 소화약제 침투가 곤란해 현재 유통 중인 소화기로 화재진압이 어려움 등이 있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로부터 소화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소화약제의 성능을 표시하여 판매해서는 안되며, 사용할 경우, 오히려 화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차연수 교수, 한국영양학회 KNS 학술대상 수상

K-푸드의 건강 우수성 과학적 입증 등... 30여년 간 식품 관련 연구성과 인정 받아

전북대학교 차연수 교수(식품영양학과)가 최근 열린 2024 한국영양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2024년 KNS 학술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지난 18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됐다.



학술대상은 한국영양학회 정회원 중 학문적 공로가 탁월한 이에게 수여되며, 최근 15년간의 연구 업적, 사회 공헌 및 학회 기여도를 평가해 한국영양학회 포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인이 선정된다.

30일 전북대에 따르면 제33대 한국영양학회 회장을 역임한 차 교수는 지난 30여 년 간 식품의 만성질환 건강 기능성 효능 평가와 그 체내 생화학적 기전 연구를 수행해왔다.

2005년부터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을 포함한 K-푸드의 건강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세계에 알리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연구 성과로 2016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에 선정됐으며, 2023년에는 전북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차 교수는 전통식품의 발효 및 저장성 증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첨가되는 '소금(나트륨)'의 중요성을 코리안 패러독스(Korean Paradox) 이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이론은 한국 전통 발효식품 중 소금 함량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해 성분들의 효능과 함께 재평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 전통 발효식품(김장, 된장, 고추장 및 김치 등)의 건강 우수성을 고염분 문제와 함께 규명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청 공무원이 뽑은 존경받는 간부는 누구?

전북공노 설문조사 결과...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등 5명 선정돼

제8대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공노, 송상재 위원장)은 도청 탐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추진하여 2024년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김영식 과장



박혜열 소장



권민호 과장



이정임 과장



고원석 과장

설문조사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6급 이하 조합원, 준조합원들이 도청 내부 행정망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3개 항목 14개 지표(직업윤리, 업무능력, 팀워크)에 대해서 본인의 소속 실과 탐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 및 타 실과 간부 5명까지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를 원하지 않는 간부는 선택하지 않아도 설문이 종료되는 방식이다.

선정 기준은 구성원 의견에 대한 인격 존중, 업무의 합리적 처리, 지도력, 도덕성과 청렴성 등 직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배려 등이 선정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전북공노 노조 관계자는 "2024년에 선정된 존경받는 간부

공무원은 평소 하위직원을 대할 때 상호 수평적인 관계에서 직원을 존중하고 업무에 대한 열정, 조직의 통솔 및 화합 등 인간미 넘치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어 선정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공노는 최하위 점수를 받은 함께 일하기 힘든 간부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직접 명단을 전달하여 강력한 인식개선 요구와 조직문화 개선, 향후 인사 반영검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송상재 위원장은 "간부공무원들의 조직 내 리더십은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도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로 연결되기 때문에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선정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아첨에 일어난다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사관계 및 직원 후생 복지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원광대 학생·교수진, 고창군청서 행정 연수 실시

심덕섭 군수, 지방소멸 위기 극복 노하우 소개

고창군이 30일 원광대학교 행정공공기관학과 학생과 교수진 80여명 고창군청을 찾아 행정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덕섭 고창군수는 대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한 자리에서 '민자유치'와 '관광산업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 핵심 노하우를 소개했다.

이후 학부생들은 고창읍성과 고인돌유적지 등 지역 곳곳을 탐방하며 고창의 지역 특성, 역사문화, 자원 환경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정 연수는 고창군과 원광대학교 간의 지역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11월에도 '고창 오감만족 힐링 캠프', '고창 치유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고창M캐이션' 등 고창 치유자원 활용



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삼성전자 물류센터와 용평리조트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청년세대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머물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며 "청년이 꿈을 펼치는 도시 고창에 많은 젊은세대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대,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최고경영자과정 8기 수료식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8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최고경영자과정은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및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회장 이인호)와 전주대가 공동 주관하는 포럼으로, 이번 8기 수료생 37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335명(1~8기)을 배출했다. 이번 8기 최고경영자과정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비전과 혁신을 위한 특강으로 지난 5월에 개강해 15주 동안 현장 강의로 매주 화요일 진행됐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강연자로 나서 급변하는 디지털 미래 사회 트렌드에 대한 명사 특강이 이뤄져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효신산업 형우생 대표이사, (주)안심경영컨설팅 김형수 대표이사, 정원산업 유경희 대표이사 전주대학교 총장 표창을,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유기달 총괄이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통문화전당-전북예총, 지역문화예술 발전 협약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지난 29일 세미나실에서 전북예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북의 문화예술 발전과 대내외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전북 문화예술 관련 체험·교육·전시 등 기획 및 공동 추진 △기타 다양한 교류와 상호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양 기관에서 집대성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전북의 문화예술 가치를 확산함은 물론, 전북예총에 소속된 각 협회의 행사에 전담의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임실·구례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협약 행사

임실소방서는 임실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서기성, 김인순)와 구례의용소방대 연합회(회장 이태용, 박금숙)가 지난 29일 자매결연 협약식 및 교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양 기관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간의 우호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과 화합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고 운영 수범사례 공유와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및 유곡동 봉어섬을 관람하고 활동 사례 공유를 진행했다.

운영 수범사례 공유 및 선진행정 교환, 친선 관계 유지 및 상호발전 도모, 소방안전문화 정착 노력 다각화 시도 등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장수경찰서, 지역맞춤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는 30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두루두루 안심-지킴이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2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홍훈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계·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능별 10월 주요 범죄분석 및 11월 범죄예방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월 주요 직무관리 체크리스트 점검하였으며, 항목으로 지역경찰 교육훈련, 사건수사 관리, 현장 경찰관 보호지원, 지역관서운영 전반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타 기능과 협조 요청사항을 공유하고, 순찰과 홍보 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전 기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장수=고관호 기자

김제 검산동 복지기동대, 가스타이머 설치 봉사활동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복지기동대(대장 최춘열)가 30일 관내 취약계층 10세대를 방문해 화재예방을 위한 가스타이머 설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마을 통장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했으며, 가스 사용 부주의로 화재 안전 취약계층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스타이머를 설치하고 사용법 및 가스 안전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스타이머는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 중간밸브가 잠겨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장치로 가스 레인지로 끄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김제=곽도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8088-6874	남원지사 632-33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8645-98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68-9823	고창지사 563-68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